

I. 연구의 목적

언론관이라 함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계이며 실제로 형성되는 언론 현상에 대한 이해와 가치 판단의 지속 상태이다. 언론관은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지표가 되는 보편적 가치관이며 철학적 정향이기도 하다. 언론관을 통하여 사회와 구성원이 향유하는 자유와 언론 제도가 규정하는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언론관은 정태적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부단히 변환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시대로 지향하며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 언론의 중요성 및 본질과 위상에 대하여 다양한 실천과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의 설정과 언론 그 자체의 올바른 체질 구축이 주요 문제 영역이었다. 사회의 열림 정도가 더욱 확대되면 될수록 언론 역시 보다 열린 제도와 공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하나 역사의 과정에는 부단히 정의와 질곡을 진폭으로 하는 체질 구축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체제 구축 과정에 언론은 근대성의 실천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성과 체질 구축을 시도하는 과정에 사회적 인식의 변환과 함께 언론관에도 변환이 있어 왔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그 시점을 분명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라는 말이 칭하는 바가 특정 매체 현상이나 전문 업무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통용되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 언론인, 언론사, 언론기관 등의 말이 대중화되면서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은 종사하는 전문인이 표현 창조하는 형질적 실물이나 그 활동 및 유관 조직을 언론으로 당연시하고 개인이나 공중도 그러한 인식을 굳혀온 것이다. 오늘날 언론관은 대중매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대중적 인식이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인 언론의 자유 향유와 제도화는 언론의 본질, 영역,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다. 개인이 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제약을 수반하는 사회 계약을 기반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규제의 근거가 확립된다. 바람직한 언론의 자유는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추어 언론이 제도로서 공인된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규제를 탄력적으로 실천하여 자율성을 갖출 때 비로소 이성적인 것이 된다. 사회와 문화, 인간의 가치와 취향이 부단히 역동적으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제도화에 따른 계약과 규제 양식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한편으로는 탈규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갖추어지기 마련이다.

언론의 규제의 원천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구성해가는 공변수적 도덕성에서 연원하며 제도적 실천의 면에서 볼 때 윤리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언론의 윤리 규제 제도는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성에 기초하여 제도화하고 운용의 틀이 마련된다. 언론에 대하여 사회가 구축해온 윤리성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이어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자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의 구성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다 다양하게 향유하게 된다. 반면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를 따르지 못하거나 언론 활동 주체의 당사자나 정치 권력 또는 이해 관계가 개재된 집단적 힘이 작용하여 자주성이 신장되지 못할 때 언론은 그만큼 자율성이 축소된 문화가 된다. 원만한 언론 제도가 정립되기 위하여 언론을 구성하는 제반 사회적 관계 요소가 충분히 자주성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윤리 규제 제도는 부단히 탐구적이고 창조적이며 수정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래의 한국 언론 현상을 윤리적 측면에서 조감해 보면 21세기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세 가지 큰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한국 언론 전통의 자주성과 권역의 문제이다. 한국 사

회에서 구성해온 언론의 고유한 전통이 무엇이며 사회적 변환과 함께 구축해온 언론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언론 영역의 올바른 설정은 윤리 규제를 위한 제도의 올바른 확립에 기초가 된다. 둘째는 한국 사회의 언론 현상에 수용해온 윤리 규제 제도가 내재하는 현안과 대안의 문제이다. 사회가 보다 열린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다원적 모습은 언론의 현상에서 그대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융통성 있게 포섭하는 한국적 언론이 되기 위하여 언론상(言論相) 역시 탄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론 규제 제도가 한국 사회 여건을 배려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바른 언론관의 각성과 함께 이에 따른 윤리 규제의 새로운 제도적 모습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식 정보화와 함께 갖추어야 할 언론관의 설정과 이에 따른 윤리적 이상 설정과 규제 장치의 확립 문제이다. 새로운 생태적 인식은 이러한 기존 대중매체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이 창조해 가는 공론장의 기능을 신문,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과 공중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 언론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를 요약하면 한국의 언론관이 형성되어온 전통과 동질성을 외국과 대비시켜 음미하고 새로운 시대에 형성될 미래상을 예측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윤리 규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영미의 언론 규정과 제도화

한국의 언론관 인식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많은 영향을 입은 영미의 언론 사상을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언론”으로 번역하여 통념화 되어 사용해오고 있는 개념들을 보면 다양하다. discussion, speech, press,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broadcasting, newspaper, media 등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번역하여 차용하는 과정에 사상이나 철학적 요체의 중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거의 “언론”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검토해 보면 그들대로의 독특한 생태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잘 염두에 두고 번역과 한국적 수용을 검토해야 했으나 포괄적인 개념 “언론” 하나로 관념화 시켜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근대 언론의 연원은 계몽의 의한 근대화와 함께 교회에 대하여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고(debate) 출판할 수 있는(press)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한다.(Levy, 1985). 영국에서 “freedom of speech”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620년 제임스 1세의 포고문에 서였으며 1644년 외일윈(William Walwyn)은 담론(discourse)의 자유를, 밀턴은 말의 자유(freedom of speaking)를 주장하였다(Levy, 1985) 그러나 이 때까지는 의회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 논쟁이었고 1673년 아레오파지티카 이후 개인이 가지는 자유로 논해지기 시작하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일반적으로 되었다.

영미의 언론 제도화의 고전적 원형으로 삼고 있는 밀턴의 언론 사상은 교회가 출판 검열을 통하여 통제하는 출판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대중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 누리는 한 권리였다.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출판의 검열에 저항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간의 자동 조정원리(the self righting principle)를 철학적 전제로 삼고 있다.

영국에서 헌법이 채택될 때 언론(speech)의 자유는 의회 안에서의 언론과 토론의 자유이며